

## 로버트 바노이, 킹스, 강의 9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 산당 – 아사, 여로보암 – 금송아지

#### 높은 곳 – 아사

우리는 높은 곳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사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산당에 관해 논할 때, 열왕기상 3장 2절을 언급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었느니라.” 자, 그것이 여기 열왕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높은 언덕, 아마도 옛 바알에 제단을 두는 가나안 풍습을 따랐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산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 합법성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빼앗아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분명하니라.” 그것은 매우 분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교의 제단을 취하여 단순히 여호와를 경배할 장소로 바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멸하며 그들의 산당을 다 헐라.” “그들의 산당을 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방의 산당을 차지할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7:5과 신명기 12:3에도 비슷한 진술이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제단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장소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24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때때로 “제단의 율법”으로 불린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곧 너희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리라.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에서는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연장으로 하면 더럽히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벌거벗은 것이 그 위에서 드러날까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단의 법칙은 다양한 제단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 매우 분명해 보이지만 제단을 쌓을 때는 이러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 중간에 출애굽기 20장 24-26절에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곳마다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제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곳,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장소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즉, 제단을 쌓고 싶다고 결정한 곳에 임의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교 제단을 차지하지 않고, 신성이 승인한 장소에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2절에 있는 이 기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의 제단이 완전히 금지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된 후 성전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합법적인 예배나 제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을 읽는 특별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이 그 땅에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며 거기 있는 제단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의 문제는 성전에 대한 독점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제단의 우선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제사를 드리는 주요 장소이며 확실히 연례 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남자들은 일 년에 세 번씩

큰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성전이 있던 곳에 하나의 주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제단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의 제단이 금지되었는지 여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준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교의 제단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장소에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도 이러한 조건은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교의 산당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종교적 혼합주의로 이어졌고, 이는 강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산당이 반드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에 거짓 예배가 들어오는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바알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높은 곳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종류의 예배가 행해졌는지, 그 장소가 신의 승인을 받은 장소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고려 사항.

**학생 질문:** 당신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하셨는데,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그 특정 장소가 파괴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Vannoy의 답변 :**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특히 Asa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고 싶지만 계속 진행하세요.

**학생 질문 :** 엘리야가 바알에게 도전했을 때... 그는 무너진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Vannoy의 답변 :**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생각은 없었지만 귀하의 요점은 이해합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밖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실제로 합법적인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제단에 그분의 신성한 승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세벨과의 대면 이후 도망하여 결국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주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위해 매우 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이제 그가 말하는 방식은 이 제단들이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밖의 제단이 이교

제단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장소에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람들이 일종의 주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한탄한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제단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왕상 15:14).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NIV 연구 성경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와 역대하 15장 17절의 언급은 여호와를 경배하던 산당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서 그들은 다시 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어도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것이 역대하 33:17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Asa와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있는 어법에 주목하십시오.

역대하 33장 17절을 보면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되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높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예배는 제단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장소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합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 있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때때로 산당에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역대하 15장 17절에 열왕기서와 같이 아사가 산당들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3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3절, 2절부터 시작하세요 :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공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하였더라.”

대하 14장 3절에서는 그가 외국 제단의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대기의 다른 언급과 열왕기서에서는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다? 그게 무슨인가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사가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14장 3절을 이교-가나안 예배의 중심지였던 산당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이 산당 중 일부는 이교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위한 곳이었고, 일부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높은 곳을 언급할 때 그 구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셨다”는 진술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배가 남용되었기 때문에 산당이라는 의미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그것은 종종 이교 예배 장소나 이교 제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 예배에서 이교가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가족을 위해 직무를 맡은 레위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년 예루살렘까지 가나요? 북쪽의 단(Dan)에 살고 있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실용성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필수 의식을 수행할 수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레위인들은 계속 왕복 해야 한다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왜 항상 앞뒤로 이동합니까?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게 어때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누군가가 임의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막 쌓아 놓은 산당이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인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한 것이지 오경의 규례와 연관되어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 높은 곳에 대한 승인을 언급하셨는데요. 제단이 어떻게



승인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Vannoy의 답변** : 예를 들어 Bethel에서요. 야곱이 거기로 갔다. 그는 사다리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거기 제단을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신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그가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둔 내용일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장소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합법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높은 곳이 합법적인 높은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모든 데이터를 보아도 적법한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목록을 얻을 때 우상과 산당과 제단이 모두 함께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계속됩니다 – 열왕기상 15장 – 구스 사람 세라에 대한 승리자 , 계속합시다. 우리는 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는 선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역대하에는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를 쳐부수고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열왕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큰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병거 삼백 대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오다가 아사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 앞에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많은 것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리고 역대하 15장에는 아사가 후원하는 언약 갱신 축제가 나옵니다. 특히 역대하 15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기로 언약을 맺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여자나 남자나 나팔과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확인하며 여호와께 맹세하였으니 온 유다 사람이 그 맹세를 인하여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진심으로 맹세하였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사와 벤하닷의 동맹 – 왕상 15:18ff 아사 시대에 이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5장 18절 이하에서는 아사가 이방 왕

다메섹의 벤하닷과 동맹을 맺었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 배경은 북왕국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여 국경 지역인 라마를 요새화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마는 남북 경계에 있는 곳인데 라마를 요새화한 목적은 사람이 유다 왕 아사의 영토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로보암이 염려했던 상황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는 유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사는 무엇을 하나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빼앗아 다메섹에 다스리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로 그의 신하들을 보냈더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조약을 맺은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조약을 맺으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내노라.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여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물론, 지도를 보면 그가 하고 있던 일이 북왕국 바아사를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북왕국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약을 맺고 자신의 은을 벤하닷에게 주고 벤하닷이 북쪽과 맺은 동맹을 깨뜨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벤하닷은 그렇게 했습니다. 20절: “그는 아사와 뜻을 같이하고” 북왕국을 공격합니다. 벤하닷은 이윤과 단과 아벨마아가와 갈릴리 바다까지 이 곳 긴네렛 전체를 쳤습니다. 바아사는 이

말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당시 북왕국의 수도였던 디르사로 갔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사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벤하닷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기록한 역대하 16장 7절은 아사가 벤하닷과 맺은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서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네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구스 사람과 리비아 사람은 큰 무기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린 막강한 군대가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사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 해 보십시오 . 아사는 이 때문에 선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가 발에 병이 들었고(12절), 병이 들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구했습니다. 그 질병은 열왕기상 15장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모든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성읍은 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들? 그러나 그가

노년기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벤하닷과의 동맹에 대해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그 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리아와 북왕국뿐 아니라 남왕국 사이의 오랜 투쟁의 시작입니다. (시리아 또는 아람 사이, 같은 단어임) 그리고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사이.

아사는 여기에서 실제로 본보기가 되는 일을 했고, 그 뒤에는 이사야가 아하스를 정죄하는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북왕국과 시리아, 아람이 함께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실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아람과 북왕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앓수르의 디글랏빌레셀과 동맹을 맺고, 이사야는 이에 대해 아하스를 정죄합니다. Asa에 관한 한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벤하닷은 시리아에서 발견된 다메섹 왕의 이름이 담긴 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문헌을 번역한 또 다른 책입니다. *고대 문서*라고 합니다. 239페이지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좋아,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

C.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 1. 여로보암 왕조 – 왕상 11:26-14:20 a.

여로보암이 왕이 되다 – 왕상 12:1-20

"C"는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처음 세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여로보암 왕조이다. 왕상 11:26-14:20. 거기에는 5개의 하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다”(12:1-20)입니다. 우리는 이미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한 내용과 관련하여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에 부르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에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로 그 세겜에서의 모임과 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그의 거절을 요청한 다음에는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2장에서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b. 여로보암이 불법적인 예배를 시작하거나 시작함 – 열왕기상 12:25-33

“b”는 “여로보암이 불법적인 예배를 시작하거나 시작함, 12:25-33”입니다. 25 절 후반부에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성을 쌓고 거기 거하였더니”라고 하는데, 북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예배 장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제 베엘은 에브라임 남쪽에 있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의 경계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Dan은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장소 모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여기에 포함된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첫째 계명보다 둘째 계명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즉,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보다 먼저 다른 신이 있겠는가?” 28절을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의 신들이 여기 있다.”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 산에 있을 때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 참조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4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들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아지 뒷면에 신의 형상이 서 있는 송아지나 황소의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송아지는 일종의 신을 위한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과 여기에서 행해진 일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 신상을 새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와 같이 가정했는데, 이 장의 뒷부분에서 8절과 같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들이니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와 절기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와 절기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와 관련하여 야훼를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송아지는 야훼의 보이지 않는 형태가 거주하는 받침대로 보였지만 실제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송아지가 권력의 일종의 표현, 상징적 형태로 여겨졌는지 여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여기서의 시도는 야훼를 숭배하려는 것이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반은 첫 번째 계명보다 두 번째 계명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여로보암이 벌을 받은 죄이고, 북방 왕들이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도 벌을 받을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걷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이 예배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안전과 백성의 충성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을 어겼고 아마도 첫 번째 계명도 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이러한 불법적인 예배 장소를 세운 것입니다.

**학생 질문 :** 그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졌던 법적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나요?



**Vannoy의 답변** : 아마도 둘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8월 15일 에 절기 를 정하셨으니”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지만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아마 그가 두 가지 중 일부를 행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 그가 자기가 정한 달 곧 8월 15일 에 제단 에 제사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 율법에서 고수할 것과 자신이 개정한 것 사이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씨. 유다 선지자 – 열왕기상 13장

알겠습니다. “ㄷ” “유다의 선지자,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베델로 갑니다. 여로보암은 거기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그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을 정죄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는 아이가 여로보암이 벤엘의 제단에 제사하려고 확보한 이 불법 제사장들의 뼈를 어느 날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이 때 이후 약 300년 동안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는 931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620년대이므로 요시야 시대보다 약 300년 앞선 것입니다. “요시야가 와서 그 제단을 헐고 그 위에 있는 제사장의 뼈를 불사르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시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놀라운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담이지만, 예언에서는 레위 왕조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북왕국에는 연결되지 않은 4개의 왕조와 왕조를 세우지 않은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일관된 라인이 없었습니다. 이 예언은 어쨌든 남쪽에 다윗의 약속과 일치하는 계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예언과 관련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단기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이것이니 곧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한 이적대로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진 것 같더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 사람들이 지켜본 바로 그날 바로 성취된 단기 예언에 의해 입증되거나 인증되는 장기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로보암은 손을 내밀며(4절) “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뺀으면 오그라들고 뒤로 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라.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주님께 간구하자 그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과 유다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를 불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명하시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만나는 장과 그가 그에게 말하는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나더러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더라’ 하였느니라 18절.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가서 그의 물을 마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 아니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느니라 먹거나 마시기 위해. 그러므로 네 몸은 네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즉, 그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일종의 특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행을 더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사자가 당나귀와 함께 시체 옆에 서서 당나귀를 공격하지 않고, 시체를 훼손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선지자가 와서 그 제단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놀라운 예언을 주었으나 그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 많은 부분이 여로보암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3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로보암은 그 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서 산당을 맡을 제사장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당에 성별하였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좋은 사람과 나쁜 선지자를 구별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은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개인적인 관심이 무엇이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매우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Ashley Busone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

